



# 가는 날이 장날이다.

일을 보러 갔더니 뜻하지 않게 장이 서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우연히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겪게 될 때 쓰는 말이에요.

**단어 뜻** 장날: 지금의 시장이나 마트가 없었던 옛날에는 보통 5일마다 시장이 열렸어요.

바르게 따라 써 보세요.

가	는		날	이		장	날	이	다	.	
가	는		날	이		장	날	이	다	.	

아래 칸에 맞춰 써 보세요.

가는 날이 장날이다.

## 이럴 때 이렇게!

- 박물관에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이 쉬는 날이래!
- 오랜만에 가는 가족여행인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비가 오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고 행동하면 상대방도 나에게 좋게 대하고,  
반대로 내가 나쁜 말을 하고 행동하면 나에게도 나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비슷한 속담

가는 땀이 커야 오는 땀이 크다 /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바르게 따라 써 보세요.

가	는		말	이		고	와	야		오
가	는		말	이		고	와	야		오
는		말	이		곱	다	.			
는		말	이		곱	다	.			



아래 칸에 맞춰 써 보세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럴 때 이렇게!

- 너 자꾸 친구들 흉보고 다닐래?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걸 모르는구나?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를 존중해야 하는 거야.



##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가랑비도 한참 동안 맞으면 옷이 젖고 말지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거듭되면 큰일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단어 뜻** 가랑비: 가늘게 내리는 비를 말해요.

바르게 따라 써 보세요.

가	랑	비	에		옷		젖	는		줄	✓
가	랑	비	에		옷		젖	는		줄	
모	른	다	.								
모	른	다	.								

아래 칸에 맞춰 써 보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럴 때 이렇게!**

-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용돈을 굳것질하는 데 다 써 버렸어요!
-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게 시간을 보내게 돼요.





## 가재는 게 편이다.

가재는 게와 생김새가 비슷해서 게 편을 든다는 말이에요.  
환경이나 사정이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같은 편이 되어  
서로 이해하고 친해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따라 써 보세요.

가	재	는		게		편	이	다	.		
가	재	는		게		편	이	다	.		



아래 칸에 맞춰 써 보세요.

가재는 게 편이다.


### 이럴 때 이렇게!

- 친하지 않은 친구인데도 같은 반이라고 편을 드는 걸 보니 **가재는 게 편**이 맞아.
- **가재는 게 편**이라더니 개구쟁이들끼리 친구가 되었군.




#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가지가 많은 나무는 가지가 적은 나무보다 바람에 잘 흔들려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지요. 자식을 많이 둔 부모는 자식들 걱정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따라 써 보세요.

가	지		많	은		나	무	에		바
가	지		많	은		나	무	에		바
람		잘		날	이		없	다	.	
람		잘		날	이		없	다	.	

 아래 칸에 맞춰 써 보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

## 이럴 때 이렇게!

-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더니 자식이 많으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
- 우리 집은 가족이 많아서 바람 잘 날이 없어요.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값이 같다면 예쁜 치마가 더욱 좋겠지요. 물건을 살 때 같은 가격의 물건들 중에서 더 보기 좋고, 더 나은 것을 고른다는 뜻이에요.

**단어 뜻** 다홍치마: 신뜻한 붉은색 치마를 말해요.

바르게 따라 써 보세요.

같	은		값	이	면		다	홍	치	마
같	은		값	이	면		다	홍	치	마

아래 칸에 맞춰 써 보세요.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이럴 때 이렇게!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값도 싸고 품질도 좋은 옷을 골라야지!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랬어, 이왕이면 예쁜 케이크로 사자.